

쉽고 친숙한 불교 진화 '절실'

21살 청년들이 말하는 한국불교

설렘으로 가득한 스무 살을 지나, 번뜩 떠오른 진로 고민으로 눈앞이 막막한 21살. '다포세대'라 불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심(佛心)으로 우뚝 선 청년 불자들은 꿈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고 있다. 본지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21살 청년들의 바람을 들었다.

신성민 · 노덕현 · 박아름 기자

“불교, '친구 손잡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혜정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스님이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왔으면”
김경민 동국대 불교학과

“모심기하며 생긴 불심, 생애 전문가 꿈 키워”
유인재 동아대 철학윤리문화학과

“상당전문가의 꿈, 불교가 큰 힘”
이강빈 5사단 일병

“불교는 '학문의 집합체'라 생각합니다”
장성주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고3때 받은 위안으로 불교신자가 됐죠.”
김지연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한혜정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불교종립학교인 동국대여자부속여자중·고등학교에 진학해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며 불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지금은 '청소년 포교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혜정(21·여)씨에게 학창시절 불교학생회 활동 경험은 하나의 '전환점'이다. 친구들과 함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여름 캠프, 템플스테이 등 참여하며 청소년 포교에 관심가지기 시작했다. 같은 종교를 가진 또래들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나도 커서 청소년 불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이다.

“나란다축제(은정불교문화진흥회 주최) 교리경시대회 참가하려고 공부한 것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교리라고 해서 지겨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재밌었고, 그래서 불교를 전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혜정씨는 현재 동서심리과학연구원 경북지부 우리열문화포럼에서 심리상담사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서 교직이수를 준비하면서 훗날 교법사로서 청소년 포교 일선에 뛰어들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공부중인 심리상담사자격증이 대학원생 과정이라 어렵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법사는 물론이고 청소년 포교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학 석사전공도 계획하고 있어요. 불교를 '친구 손잡고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김경민 동국대 불교학과

“중립대학을 다니다보니 저는 스님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국대 불교학과에 재학 중인 김경민(21·여)씨는 한국불교계에 바라는 점으로 '대중화'를 꼽았다. 일반인, 특히 젊은이들에게 불교는 아직도 어려운 옛것이고 다가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스님'으로 일반인들은 생각해요. 수행자로서 근엄한 위의를 가지시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도 스님들이 고민해주셨

으면 합니다. 그리고 10~20대의 '취향 저격' 포교 프로그램이나 문화 행사들을 불교계에서 개발해 주길 바랍니다.”

부산 출생인 김경민 학생이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니게 된 것도 어릴 적 영향이 크다. 어머니를 따라 김해 대법문사를 다니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차담을 하며 불교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대학 전공으로 불교를 선택하게 됐다.

그렇게 시작한 대학 생활에 대해서는 '신행'으로서 불교와 '학문'으로서의 불교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막상 불교학을 접하니 꽤 어렵네요. 최근에는 인도철학이나 논리학 등 관심 있는 분야가 조금 변하기도 했습니다. 1학년 때 들었던 마가 스님의 '부처님 사랑해요' 수업도 재미있었습니다. 명상 등을 직접 해보면서 즐겁게 불교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이면 대학 생활의 전환점을 도는 김경민 학생은 요즘 고민이 많다. 불교 전공자로서 가지는 취업, 진로 문제가 주된 고민의 요소다. 3학년도를 마치고 1년 휴학도 고려해보고 있다. 어학 등 자기 개발에 매진하기 위해서다.

“학교와 학과에서 취업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여러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과연 불교 전공자로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최근 들어 고민하게 됩니다. 불교와 철학은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실용학문'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그럼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재 동아대 철학윤리문화학과

“전 사실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가 하는 생명평화실천단 1기로서 모심기, 템플스테이 등 활동하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동아대에 재학 중인 유인재(21·남)씨는 없어졌던 불교학생회를 다시 살리고 부회장을 맡아 신입생을 유치하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유 씨조차 처음에는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유 씨는 '생태·환경에는 관심이 있었기에 생명평화운동을 하며 불교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봉사활동을 위해 '파라미타

에 가입해 회장을 맡으며 더욱 신심이 깊어졌다'고 소개했다.

유 씨의 경우 생명평화 실천운동을 하며 교육감 상을 받고, 파라미타 활동 당시에는 선운사에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유 씨는 “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을 권유할 때 단순히 불교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저와 같이 자신이 꿈꾸는 방향에 불교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저의 경우는 현재 불교철학과 생명윤리, 환경을 공부하는데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진학해 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어린이법회·동아리 등 불심 키워 캠프 등 참여하며 인맥도 UP “취향저격' 문화콘텐츠 개발해야'

유 씨는 N포세대라 불리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준비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있으며, 불교는 이들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교리를 알려주고 법문을 들려주는 것보다는 명상과 힐링법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불교가 고등학교, 대학생 포교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강빈 5사단 일병

5사단 광복 통일사에서 현재 군중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빈 씨(21·남)는 군대에 와서 불심이 더욱 깊어졌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제대 후 심리상담 전문가의 꿈을 키워갈 것이라고 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다 군에 입대한 이 씨는 평소 애 듣는 법문 속에서 심리상담의 이치가 담겨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매주 법당에서 좋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힘든 군 생활을 어루만지는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대 후에는 학업을 열심히 하여 대학원에도 진학할 생각입니다.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씨는 군부대에서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걱정거

리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열심히 군복무 중인 동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 후나 복학 후, 또 취업 등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 또한 이런 걱정들이 많았지만 불교를 알게 되고 걱정을 덜하게 됐다. 군대 내에서도 많은 장병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이 씨와 같은 청년 불자들에게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씨는 불교가 청년 불자들에게 열린 종교가 되고, 이를 통해 불교를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청년들이 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알고 보면 불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면 서도 경전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감성을 다독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대기살법이 수천 년이 지나도 쓰이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불교를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이들이 빠져들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논리적이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주 금강대 응용불교학과

장성주(21·여)씨는 요즘 불교 공부에 푹 빠져있다. 유년 시절 어린이 법회에 다니며 막연하게 배웠던 불교 교리를 대학 진학 후 깊이 있게 공부하며 재미를 찾은 것이다. 1학년 때는 학문으로서 불교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 전공이나 복수전공 등 고려했지만 현재는 불교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불교를 공부하면 확실한 것들이 더 많아요. 여타 전공수업처럼 활자를 읽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닌 마음공부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는 종교 그 이상의 철학·심리학·역사학적 요소들도 담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집합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불교를 공부하면 모든 학문들을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장성주씨가 이번 학기 가장 흥미롭게 듣고 있는 수업은 '생태학과 불교'이다.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배우며 불교의 상호관계성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다.

“부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 만물은 하나로서 어우러져 있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해치고, 파괴된 자연은 또 다시 인간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러한 불교적 생태계 순환구조를 배워가며 부처님의 연기

(緣起)법과 윤회사상을 깨닫습니다.”

불교를 더욱 가까이 느끼고 싶다는 장성주씨에게는 하나의 바람이 있다. 대만 불광산사 1967년 성운 대사가 설립한 불광산사는 대만불교의 총본산으로, 산 전체가 불교문화 단지로 조성되어 있다. 장성주씨는 “불광산사는 불교를 현대인들에 맞게 응용해서 명상, 수행 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학문적 견해를 넓히고 싶다”고 전했다.

▲김지연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연(21·여)씨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불교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학생이었다.

김지연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스트레스가 심할 때면 책을 읽었는데 우연히 읽은 불교 에세이집에서 위안을 얻었다”며 “낯가림이 심해 대학에 들어온 후 대외활동을 하고 싶어 연희단 활동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불교활동을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씨는 현재 대불련 문화부 소속으로 덕성여대 동아리에서 1주일에 한번 씩 법회를 주관하고 영캠프 등 대학생 불자모임에서 공연을 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씨는 불교계 활동을 하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점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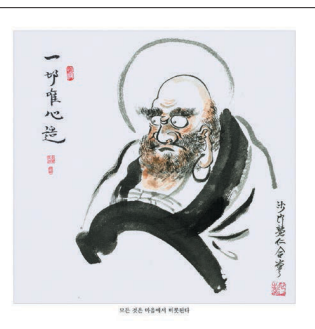
“선배들과 소통하며 특히 대인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출판 쪽으로 진로를 생각했는데 활동을 하며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 문화계 쪽으로도 진로를 변경할 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활동을 하며 공연 기획 등을 하는 것도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지연씨는 불교 안의 '재미'를 살려야 젊은 불자들이 끌어 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사실 '불교' 하면 공부부 해야 한다는 의무 같은 게 있다”며 “굳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오히려 반문했다.

김 씨는 “불교를 쉽게 접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스스로 ‘아, 이것이 불교구나’ 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한다. 이런 흥미부터 생겨야 공부도 하게 된다”며 “좀 더 친숙한 종교로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선으로 가는 길 (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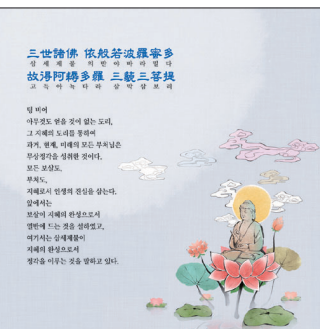
달마도 (대,소)



밝고 향기롭게 (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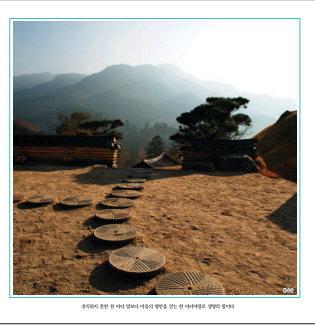
선화의 향기 (대,소)



반야심경 (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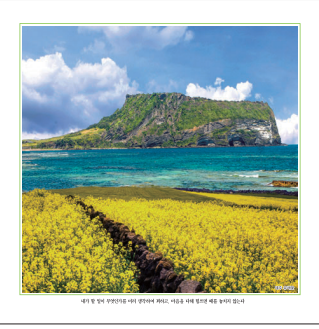
산사의 꽃 야생화 (대,소)



암자에 길을 묻다 (대,소)



부처님의 성지 (대,소)



그리운금수강산 (대,소)



붓다의 향기 (대, 소)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수첩 트윈스프링 차캘린더